

## 축 사

우리 종단 직할교구의 주요 사찰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 호암사가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수승한 가르침을 전하는 학술대회를 위해 진력을 다한 주지스님과 소임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호암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비나눔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신의 삶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일은, 종교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본연의 모습이자 우리 종단의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암사의 역사적인 유래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습니 다. 남아있는 기록이 다른 사찰에 비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 빈약한 기록마저도 대부분 흩어져 일부 설화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주지 우봉스님이 학술대회를 통해 흩어져 있는 호암사의 소중한 기록을 한데 모아 호암사의 역사와 유래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일은 종단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학술대회라 할 것입니다.

호암사는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세웠던 무학대사의 인연이 참으로 지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를 열었던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께서는 어수선한 왕조의 초기 국정혼란을 수습했던 시대가 나온 선지식이었습니다. 무학대사의 건의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겨 국정을 안정시키고, 사대문 주변에 사찰을 창건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호암사는 도성인 한양을 보호하는 비보사찰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호환, 즉 호랑이 출몰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애민의 정신이 깃든 도량이라는 점입니다. ‘호암사’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호암사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물론 이념으로 갈리고, 또 빈부로 나뉜 지금의 혼란을 무학대사의 지혜를 통해 극복하는, 해안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주지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결실이 여러분 모두를 자비광명으로 안내하고 사회의 밝은 빛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